

# 자기주도성 바탕 사고하고 탐구하다

### 전북자치도교육청, '개념 기반 탐구수업' 수업혁신 주요 정책으로 지정·운영 도내 14개 시군별로 최소 1곳씩 총 17개 학교 지정... 지역별 거점 역할 수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을 수업 혁신 주요 정책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념 기반 탐구수업'이란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탐구의 과정을 통해 깊이있는 이해에 도달해 삶에 전이 가능한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IB 교육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개념 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를 도내 14개 시

군별로 최소 1곳씩 총 17개교를 지정해 개념 기반 탐구수업의 모델을 개발하고, 수업공개를 실시해 각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교사 개인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업혁신 지원단'을 모집, 탐별 연구 활동을 통해 개념 기반 탐구수업 운영을 지원하는 수업자료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된 자료는 전북수업샘터 사이트에 탑재된다.

더불어, 단위 학교 수업 나눔 활성화를 위한 '수업 나눔 공동체 300여 팀'을 운영해 학교 내 교사들의 '수업연구-공개-협'의 문화가 정착되고, 수업

이 내실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개념 기반 탐구수업에 최적화된 탐구 노트를 제작·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주제에서 다루는 탐구 질문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문제 해결 과정을 스스로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임대섭 기초교육과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2024년을 원년으로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견인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는 13~14일 이틀간 2024년도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제4차 임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교육대학교 제공)

## 초등교원 양성 기관 새 길 탐색 방안 마련

### 전주교대,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제4차 임의회의 20일 교원양성교육 재설계 위한 방향 찾기 주제 학술 세미나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13~14일 이틀간 2024년도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제4차 임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회장교),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부회장교)을 비롯한 협의회 소속 11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의 사항으로는 교원양성대학

자원 공유 관련 논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조정방안 등이다. 이어 둘째날에는 순창군수와 면담을 했다. 박병춘 총장은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대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학 간 협력·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초등교원 양성 기관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는 오는 20일 '교원양성교육 재설계를 위한 방향 찾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생성형 AI 활용해 수업을 바꿔보세요"

### 미래교육연구원, 교사 위한 동영상 학습자료 개발 기본 개념부터 실제 수업 적용 방법까지 7차시로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교사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동영상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해 텍스트, 이미지, 미디어 등을 생성할 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은 교사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동영상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생성형 AI 활용 동영상 학습자료 화면 캡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의 생산성은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며 "학교 업무와 수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수업의 질은 물론 교사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영상 학습자료는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총 7차시로 제작,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자신만의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롬프트 입력 방법인 G.E.A.R(Gear Explain Ask Review)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AI챗봇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교사가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익 원장은 "앞으로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동영상 학습자료를 개발해 교사들의 AI디지털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 학습자료는 매주 화요일 미래교육연구원 전북교육영상 누리집(https://vod.jedu.kr/)을 통해 업로드될 예정으로, 미래교육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전북교육영상)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제도 안내

### 교원지위법 28일 시행 관련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학교장 9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지난 4일 개통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른 학교의 수행사항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긴급경호 제공,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교원보호공제 가입사항 등 신학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설명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돼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면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특별법·교육특례 발굴 이해 연수 진행

### 주요 내용·사례 중심 특례 발굴 필요성 설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14일 이틀간 창조나래 및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전북특별법 및 교육특례 발굴 이해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3일은 분청 장학관 및 사무관과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14일에는 교육특례 발굴 지역협의체 및 교육발전지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각 운영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방개정 법률에는 4개의 교육특례가 담겨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올해 2차 개정을 앞두고 추가 교육특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역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14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특례 발굴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각 지역 실정에 맞춰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법률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꾸려졌다.

이번 연수에는 전북연구원 장세길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전북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교육청의 비전·현안·중점사업 △학생과 도민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지역특화교육 등을 주제로 특례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규칙·지침에 따르는 내용, 사회적 이슈 및 이해관계자 충돌 우려가 있는 내용, 단순 재정지원 등은 특례제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학령인구 유출 등 전북교육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특례 발굴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전북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글로벌 대학 선정에 올인

### 우석대 박노준 총장



역기구 기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공정 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손을 맞잡았다.

지난 3월 1일자로 우석대학교 제 15대 총장에 취임한 박노준 총장(사진)이 공식 취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취임식 대신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 4일 취임 첫 공식 행사인 전주캠퍼스 입학식에 앞서 교내 교직원친목회와 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 대표를 집무실로 초대해 대학이 직면한 도전과 혁신 방향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군장대학교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 간 연합모델 구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 결국 양 대학은 11일 글로벌 파트너가 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6일 전주캠퍼스를 방문한 몽골법집행대학교 대표단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글로벌 대학의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 마련과 함께 공평무

박노준 총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대학 구성원들과 '원팀'이 돼 헤쳐나간다면 우리 대학교가 100년 대학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해 잘 해서 우리 대학교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글로벌대학30은 교육부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비수도관대학을 선정해 5년 동안 대학에 약 1천억 원을 지원되는 사업으로, 오는 2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내달 중으로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장은성 기자

## 유보통합 순차적 추진

### 전북자치도교육청, 유보통합담당팀 신설 올해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신청키로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보통합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지난 1일 유보통합담당 팀이 신설된 것.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원화된 관리체계에 따른 교육 격차로 새로운 영유아 교육·돌봄 체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으로의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관리체계 일원화로 도내 모든 영유아의 질 높은 영유아 교육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교사 양성체제라든지, 교육지원청 인력확보 문제 등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유보통합 이관 범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업무다. 다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제외된다.

이어 이관 절차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순차적 3단계로 진행된다. 이 경우 통합모델 일정에 따라 1~2단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관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어린이집 3~5세 급식비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교원 연수를 운영했다.

또한 유보통합추진협의회를 2회 실시하고, 유보통합관리일원화추진단도 운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보통합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급·간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유보 이음 교육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 싱가포르 대학생들, 한국 전통문화에 흠뻑

###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학생 26여명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단기 연수 프로그램 참여

싱가포르 대학생들이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큰 호응을 보였다.

14일 호텔경영학과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싱가포르 대학생들은 첫날 한국마술과 경기전을 차례로 둘러보고, 이어 고창 상하농원을 방문하는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함께 다양한 한식을 맛봤다.

특히 싱가포르 대학생 26명이 참가한 이번 프로그램에서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학생들의 한국 문화 사랑은 특별했다.

싱가포르 대학생들은 경기전의 고풍스러운 한옥에 매료됐다. 한복과 전통매듭 체험 활동을 좋아했고, 한국 대학생들의 일상을 체험해 보는 활동에도 관심을 보였다.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3학년 리케엔 씨는 "경기전 투어를 통해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알게 됐으며, 한복 및 매듭 등 한국의 전통문화도 너무 아름다웠다"며 "유튜브로 알게 된 한국의 음식도 직접 와서 먹어 보니 입맛에 맞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3학년 티파니 메이 치 씨는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한국식 카페를 경험할 수 있게 돼 너무 좋았다"며 "다양한 메뉴



와 친절한 서비스가 특히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김민주 학생(호텔경영학과 4년)은 "싱가포르 학생들과 여러 날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싱가포르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호텔경영학과 임현정 교수는 "2022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문화탐방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다양한 한국문화 관련 수업과 체험행사에 대한 싱가포르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 큰 보람이었다"며 "앞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의 협업체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